

《춘추 IV. 황중통리黃中通理: 김종훈 도자》



대정호

2020

사질카오린, 물토재유, 장작가마 소성

16.2x15.6x9.5cm

(굽너비: 5.7cm, 무게: 400g)

전시개요

전 시 명 : 《춘추 IV. 황중통리黃中通理: 김종훈 도자》

전시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12월 27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88점 (정호다완 75점, 분인다완 3점, 대호 6점,

조선 시대 다완 3점, 달항아리 1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0년 11월 25일(수)부터 12월 27일(일)까지 《춘추 IV. 황중통리黃中通理: 김종훈 도자》를 연다. 김종훈은 20여 년 동안 정호다완을 연구하고 제작하며 한국 도예의 맥을 이어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종훈이 최근 3년간 제작한 정호다완 75점과 분인다완 3점, 백자 대호 6점을 선보인다. 더불어 조선 시대의 다완 3점과 달항아리 1점을 함께 전시한다.

학고재는 학고창신(學古創新)의 실현을 목표로 기획한 '춘추(春秋)' 전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2010년 《장왕고래(章往考來)》와 2015년 《추사와 우성》전, 2016년 《함영저화(含英咀華)》전에 이어 이번 전시가 네 번째다. 과거 3번의 전시에서는 우리 고서화와 현대의 회화, 조각, 서예, 중국 고 문물 등의 작품을 선보였고, 이번 전시에서 17~18세기의 고 도자기와 현대 김종훈 작가의 찻사발과 항아리 두 종의 작품으로 전시를 꾸몄다.

주역 곤괘에 따르면 땅의 아름다움을 '황중통리'라는 말로 표현했다. 내면의 지성을 갈고닦아서 이치에 통달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 생각과 감정이 한 덩어리로 순수해져서 잡다한 생각이 제거된 이상적 내면 상태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곧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과 행위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낸다. 주역은 이것을 '황중통리'라 했다. 황중이란 내면의 응축된 황색, 곧, 땅의

색을 말한다. 조선 시대를 대변하는 18세기 백자 달항아리 1점과 김종훈 작가의 백자 항아리 6점도 함께 선보인다.

2. 전시 주제

언 컨택트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전통성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회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다. 차를 즐기는 것은 과거 선비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한 생활 문화이다. 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다기들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동적인 생활보다 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 고 도자와 김종훈 작가의 정호다완 및 백자 항아리를 함께 펼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전시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숲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시도다.

자신만의 사유로 해석해낸 김종훈의 정호다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사발과 정호다완은 생김새가 비슷하여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호다완은 14~16 세기 제작되었다면, 우리가 흔히 막사발이라 부르는 도자기들은 17~19 세기 임진왜란 이후 제작되어 서민들이 사용했던 도자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김종훈 작가가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찻사발(다완)은 현재 일본에서 극진히 대우받고 있는 약 20 여 점의 국보 및 보물급과 민간 유력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300 여 점의 다완들을 15 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일본에 방문하여 실사하고 내면에 용해하여 그것에서 얻어진 이해를 통하여 구현한 작업이다. 일부의 작품에선 과거의 정호다완에서 보이는 석열과 빙열, 유약의 뭉침이 다시 재현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 정호다완을 만들었던 사기장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 내면에서 곱씹고 정제하여 밖으로 쏟아낸 결과물이다.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대정호

2020
사질카오린, 물토재유, 장작가마 소성
16.2x15.6x9.5cm
(굽너비: 5.7cm, 무게: 400g)

작가는 “나는 다완이 처음 작업이자 마지막 작업이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작가에게 다완은 작업 인생의 중심이며, 처음이자 끝이다.



소정호

2020
사질카오린, 물토재유, 장작가마 소성
14.1x14.3x7.3cm
(굽너비: 5.1cm, 무게: 296g)

이번 전시엔 대정호, 청정호, 소정호 3가지 형태의 정호다완이 전시된다. 형태와 크기로 구분된 대정호, 소정호와 달리 청정호의 경우 다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약이 가마에 소성되는 과정에서 푸른빛을 머금게 되어 청정호라는 명칭이 붙었다. 현재는 3가지 다완이 각각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청정호

2020
사질카오린, 물토재유, 장작가마 소성
15x15x7cm
(굽너비: 5.2cm, 무게: 263g)

정호다완의 제작 과정은 우선 다완에 적합한 태토를 찾아내고, 오랜 숙성을 거쳐 수비와 꼬막을 통해 물레 위에 올린다. 물레 위에서 기물을 성형할 때 그릇 위에 작가의 손이 기억되고 생각이 부여된다. 물레질로 감추어진 속살은 굽질에 의해 드러나 매화피의 자리를 만든다.

언뜻 보기에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호다완들은 오히려 섬세하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막사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무게와 깊이, 그리고 고졸한 매력이 넘친다.



백자 대호

2020
백토, 물토재유, 장작가마 소성
53x53x53(h)cm

“나는 찻사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진 안목과 마음으로 향아리를 만들었다”.

요즘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달 향아리나 백자 작업들은 썩하면서 차갑고 고정된 색이라면, 김종훈 작가의 향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온화하면서 고졸함을 머금고 있다. 다완을 만들면서 얻어진 기법과 생각이 향아리에도 그대로 실현된 결과다. 인위적인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요즈음 흔히 사용되는

가스가마가 아닌 장작가마를 사용한 흔적이 작품의 불 균형 한 외형에서 잘 보여진다. 전통의 핵심을 충실히 연구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팔도 다완

17세기

12x12x7.8cm

(굽너비: 4.6cm)

<팔도 다완>(17세기) 표면에는 기름띠 같은 색감이 보인다. 저화도에서 만들어진 도기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기법과 도기 형태는 전형적인 라쿠 기법으로 만든 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은 일본 라쿠다완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 후예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조국이 그리워서 었을까. 찻잔 표면에 조선 팔도의 이름을 철화로 썼다. 슬프고도 아련한 이야기를 간직한 작품이다.

4. 작가 소개

『조선 막사발과 이도다완』(한길아트, 2012)의 저자 정동주 선생은 “훌륭한 미술품은 생명력을 지닌 것이며, 생명력은 미술품을 창안해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될 때 가장 빛난다.”라고 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는 “찻사발은 작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작가가 만든 도화지 위에 사용하는 분들의 시간과 차에 의한 사유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진 작가의 찻사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관객과 소장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김중훈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8년 단국대학교 도예학과를 졸업했다. 가나아트센터(서울),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반달미술관(여주), 갤러리 조유사(일본), 갤러리 소무시(일본), 라오구 스튜디오(베이징) 등 한중일 삼국을 오가며 개인전을 열었다. 이천세계도자센터(이천), 우리그릇려(서울), 청주시한국공예관(청주), 갤러리 교우에이-가마(일본), 아크로스 후쿠오카(일본) 등이 개최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중통리(黃中通理)

학교재 전시 기획실

「군자는 황색으로 안을 채우고 이치에 통달(黃中通理)하여 바른 자리의 중심에 선다.
아름다움을 내면에 길러서 온몸에 펼치고 사업에 뻗어나가게 한다.
미(美)의 극치라 하겠다!」

주역 곤괘에 나오는 말이다. 학교재 '춘추' 4 번째 주제를 황중통리로 잡았다. 곤괘는 땅을 상징하는 괘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성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상징한다. 땅은 끝 모를 두터움으로 산천초목을 싣고 살린다. 어머니는 가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기른다. 주역은 그것을 충만한 황색이라 했다.

황색은 땅의 정색이다. 학교재는 조선 전기 16 세기에 만들어진 우리의 정호다완(井戶茶碗)이 한없이 깊고 끝없이 두터운 대지의 색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뒤로한 채 오직 자식만을 위하는 어머니의 덕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참으로 아쉽다. 소홀히 취급한 탓일까. 이때 만들어진 정호다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마저 모두 일본인 손에 있다. 국내엔 전무하다. 제작된 도요지와 확실한 용도도 아직 합의된 정설이 없다. 연구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번 전시에 전성기의 정호다완은 출품하지 못했다. 대여해올 방법이 없었다. 다만, 그와 연관성이 있는 작품 3 점을 출품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뿐이다.

전통의 가치는 그것이 창조의 뿌리가 된다는 데에 있다. 도예가 김종훈 선생은 이 시대 어둠으로 남아있는 도예계의 한구석에 등불을 밝힌 분이다. 도예 작업에 발 들인 날부터 지난 20 여 년 동안 정호다완을 연구하고 제작해왔다. 일본을 이웃처럼 드나들며 중요한 정호다완을 모두 실사했다. 그와 관련된 전시는 언제 어느 곳이든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실견했다. 정호다완이라는 꽃봉오리 속에 숨겨진 꿀물을 저작(咀嚼)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여정을 거듭하여 내면에 쌓은 자양을 이번 전시에 70 여 점의 정화로 토해냈다. 보는 이들은 이 작품에서 축적된 세월의 흔적과 같고 닦은 생각의 깊이를 확인하게 되리라 믿는다. 황중통리의 뜻을 도예로 해석해 냈다고 하겠다.

대지의 정색이 황색이라면 조선 시대를 품은 색은 백색일 것이다. 18 세기 백자 향아리는 조선의 심성을 대변하는 백색 도자기다. 이번 전시에 18 세기의 듄직한 맘머느리 닦은 달항아리 1 점과

김중훈 선생의 겨울날 시골마을 뒷동산에 소복이 쌓인 흰 눈 같은 백자 항아리 6 점을 함께 펼쳤다. 전통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기름으로 현대를 이끌어 갈 등불을 켜고자 한 것이다.

우리의 황색 다완과 백색 항아리는 서릿발처럼 차갑거나 송곳처럼 뾰족한 색이 아니다. 겨울날 우리네 황톳빛 들녘 위에 느릿느릿 내려 쌓이는 함박눈처럼 따스한 색이다. 오늘을 품어주고 내일을 열어갈 복된 색이다.

6. 작가 노트

김중훈

나는 도자기를 빚는다.

빛어진 모습 속에 나를 담으려 한다.

아니 어쩌면 그 안의 모습에 자연의 마음을 담으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도자 작업은 항상 갈증과의 즐거운 놀이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간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인식의 통로를 거쳐 무언가를 깨달아, 그 무언가를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작가는 새로운 감각과 사유(思惟)의 폭을 비로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체화 한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일까.

순수한 사유로 만들어진 작품은 보고 쓰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사유를 그려 넣을 좋은 캔버스가 된다. 좋은 캔버스, 즉 작품은 많은 작가의 사유의 입자들로 만들어진 고해상도 TV 패널과도 같은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문화는 작가나 수용자에 의해 사유의 팽창이 계속되는 장르일 것이다. 더 이상 서로에 의한 인식의 확대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문화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만드는 작가, 사용하는 차인으로서 더 넓고 깊은 경험의 과정과 축적된 시간을 찻사발에 담아내려고 한다.

나의 찻사발. 나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이미 수많은 찻나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정호찻사발을 만든다. 나는 먼저 만든 이와 쓰는 이, 작가와 다인(茶人)의 사유를 통한 공감대를 느껴보려 했다. 이 과정과 결과를 담지 않으면 정호라는 찻사발의 장르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옛 찻그릇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옛 도공과 다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일본의 많은 조선 정호차사발 전시회를 찾아갔다.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흙을 찾고 만들며 얻어진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전시장에서 답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동시에 차사발을 주로 사용했던 일본 다도를 공부하며 그곳에서 옛 다인들의 사유를 찾아보려 했다. 물론 항상 올바른 사유만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거듭해야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의 생각과 작업 간의 일체성을 찾아갔다.

나는 이번 전시에서 지금까지의 차사발 감상과 만들기를 통해 얻어진 풍부한 물질의 이해와 과거 많은 다인들의 차사발을 통한 생각들을 그려보려 했다. 나에게 각각의 경험으로 나눠져 있던 흙, 물레질, 유약, 불, 다도, 시간, 좌절, 희열들을 하나의 찾그릇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다. 이 그릇을 쓰는 이들의 다양한 정감이 내가 담아낸 생각들 위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켜켜이 쌓여가기를 염원해본다.

7. 작가 약력

김종훈

1972 서울 출생

1998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도예학과 졸업

개인전

2020 춘추 IV. 황중통리黃中通理: 김종훈 도자, 학고재, 서울

2019 차(茶)사발속에 춤추는 삶, 노영희의 그릇, 서울

2018 나의 정호다완, 갤러리 조유사, 나라, 일본
류광이채(流光異彩), 라오구 스튜디오, 베이징

2017 나의 정호다완, 사와다미술, 히로시마, 일본
설우요 김종훈 다완, 갤러리 오무향, 여주
김종훈 다도구, 갤러리 조유사, 나라
정호다완, 갤러리 소무시, 교토, 일본

2016 김종훈 다도구, 라오구 스튜디오, 베이징

2015 한국생활도자 100 인 - 한국의 찾그릇 파트 Ⅱ: 온고지신,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반달미술관, 여주

2014 대기만성(大器晩成), 갤러리 서춘재, 서울

- 2013 나의 정호찾사발, 갤러리 소무시, 교토, 일본
- 2010 다색(茶色),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9 나의 찻사발, 갤러리 소무시, 교토, 일본
- 2007 차(茶) 그리고 화(花),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3 장작가마 찻그릇 - 차(茶) 그리고 화(花), 토아트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20 자아도취, 노영희의 그릇, 서울
- 2019 일차일반(一茶一飯), 라오구 스튜디오, 베이징
- 2017 다톡(茶 Talk), 노영희의 그릇, 서울
여주국제도예작가협회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반달미술관, 여주
- 2016 티타임, 갤러리 단디, 서울
- 2015 달빛 머금은 향기 아래서 그대를 품다, 대백프라자갤러리, 대구
생활의 발견 도(陶):도(圖), 갤러리 3, 서울
제 8 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워크숍 - 10 데이즈, 갤러리 LVS, 서울
- 2014 제 11 회 여주도회가회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반달미술관, 여주
- 2013 도예, 다多, 두원아트센터, 부산
- 2012 어울림: 김종훈, 문지영 도예, 갤러리 청담, 청도
생활의 품격, 롯데갤러리 광복, 부산
우리는 도코나메로 간다, 도코나메 도자축제장, 도코나메, 일본
남한강 젊은 작가 도예,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반달미술관, 여주
- 2011 제 6 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워크숍, 갤러리 도도, 광주
6 인 6 색, 갤러리 도도, 광주
도자의 미: 시선이 머물다, 목금토갤러리, 서울
- 2010 각양각색(各樣各色), 갤러리 다운재, 울산
- 2009 제 10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벅스코, 부산
제 10 회 여주도예작가협회 정기전, 여주엑스포 전시장, 여주
우리는 도코나메로 간다, 갤러리 교우에이-가마, 도코나메, 일본
도자 색(色)을 품다, 이천세계도자센터(이천세라피아), 이천
차 한잔에 깃든 행복,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8 제 9 회 여주도예작가협회 정기전, 토포하우스, 서울; 여주엑스포 전시장, 여주
도자&인테리어, 여주엑스포 전시장, 여주
제 9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아가노 갤러리, 후쿠오카, 일본
커플공방, 한향림갤러리, 파주

- 2007 제 8 회 여주도예작가협회 정기전, 공예갤러리 나눔, 서울; 여주엑스포 전시장, 여주
제 8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6 제 7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아크로스 후쿠오카, 후쿠오카, 일본
찾그릇, 가나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다기대전 – 천년의 혼, 숨 쉬는 다기, 청주시한국공예관, 청주
조화(調和) – 김종훈, 문지영 그릇,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5 차 그리고 꽃, 공예갤러리 슈, 교토, 일본
제 6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서울
- 2004 도자 3 인, 산아트갤러리, 청주
제 5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아가노 갤러리, 후쿠오카, 일본
주(酒)기,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오후의 티타임, 우리그릇 러, 서울
- 2003 수(水), 세라믹 요, 서울
제 4 회 한일 도예작가 교류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도자 4 인, 갤러리 몬티첼로, 양평
4F – 페스티벌,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
장작가마 찾그릇, 통인화랑, 서울
주전자 주전자,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불우이웃돕기 도자 바자회,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2 이 그릇에 당신을 담습니다, 갤러리 몬티첼로, 양평
- 2001 장작가마 찾그릇, 통인화랑, 서울
- 1999 회복, 호산아트센터, 서울